

민중미술 정점...역사적 변혁의 시간 '반추'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특별·교류전시 잇단 진행

5·18민중항쟁기념 미디어아트로 첫번째 특별전
몰입형 미디어아트 '민중해방운동사' 복원 주목
광주·라이프치히시 교류전...추천 작가들 눈길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이 초대형 작품은 안타깝게도 1989년 6월 한양대 전시회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때 백골단에 의해 압수되고 찢겨졌으며 불타 없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처음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에서 이 그림을 걸었을 때 정경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거든요. 그때 기획을 했던 최철 선생님이 카메라로 찍었던 그 사진을, 슬라이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복원이 되면서 고화질 디지털 파일을 저희가 최강 콘텐츠로 구현한 것이죠. 이 그림은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의 공공 장소에서 걸렸고, 전주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도시의 미술 단체들이 걸었습니다.”

이 멘트는 민중미술사에 대한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하 지맵 G.MAP)이 혁신 학예사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민중해방운동사'에 대한 언급 대목이다. 작품 '민중해방운동사'는 지맵이 5·18민중항쟁을 주제로 마련돼 지난 7일 개막, 오는

7월 15일까지 1~3전시실에서 열리는 5·18기념 미디어아트 첫번째 특별전에서 단연 눈길을 붙잡고 있는데다 전시장을 반드시 방문하고픈 욕망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다.

“완전한 것들의 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 '민중해방운동사'는 틈에 놓인 존재와 같았다. 원작이 소실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민중해방운동사'는 갑오농민 동학혁명에서부터 일제강점기 항일무장투쟁, 해방 후 한국전쟁, 4·19혁명, 5·18민중항쟁, 6월 항쟁 등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민중해방운동 과정을 망라, 총 120년의 역사가 담겨 서사시 같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민중미술사에서 언급하지 않고는 안되는 중요 지점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민중해방운동사'는 1988년 12월 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이세현 작 '푸른 빛 붉은 밤' 옛 국군광주병원 ('기억의 출발: 휴먼지가 가라앉은 뒤') 전

(위원장 홍성담)가 지역 간 연대 창작물인 대하 결계그림을 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후 1989년 전국 5개 지역의 미술 집단과 30개 대학의 미술 패 회원들이 참여, 3개월 동안 매달려 완성한 작품으로 총 11쪽으로 구성됐다. 1쪽의 크기가 세로 2.6m에 가로 7m 규모로 총길이는 77m에 달했다. 1989년 4월 서울대학교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야외 전시로 진행됐는데 광주에서는 금남로를 순회하며 전시된 바 있다.

이 작품은 결계그림 양식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사회 변혁의 메시지를 전달한 1980년대 민중미술의 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지

맵의 몰입형 미디어아트로 완성한 '민중해방운동사'는 민중미술사에서 옥의 티처럼 민중미술가의 시각에 근거해 틈으로 존재했던 결계그림이었으나 이를 다소 보완한 전시로 기록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굴곡진 한 시대의 총합판이자 최종결과보고서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이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 5월 관련 전시 중 반드시 관람해야 할 작품 중 하나로 꼽힌다.

“완전한 것들의 틈”전은 1전시실에 '민중해방운동사'가 설치돼 있고, 2~3전시실에는 권승찬 강수지 이하영 문경원 이용백 장민승씨 등 국내 작가의 작품이, 올리

아 페도르바, 가브리엘라, 윌리엄 켄트리지, 처치엔취안, 사하르 호마미 등 해외작가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다.

작품 경향은 제주4·3과 순천 10·19, 5·18민중항쟁(강수지·이하영)에서부터 이념 갈등속 폭력의 순환(권승찬), 권력의 공허함(문경원), 현대인의 위태로운 상태(이용백),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반북되는 비극에 대한 애도(장민승)에서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쟁이 개인에 가하는 압력(율리아 페도르바), 역사적 부조리 풍자(윌리엄 켄트리지)에 이르기까지 현실적 문제들을 작품전면으로 호출하고 있다. 해외 작가 중 윌리엄 켄트리지는 남아공의 피카소로 불리는 작가이

며, 처치엔취안은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한 바 있는데 중국 작가이지만 대만자료를 영상취재해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사하르 호마미 이란 작가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그의 작품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제4전시실 또한 의미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1~3전시실과 연동해 관람하면 더 풍족한 작품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광주와 독일 라이프치히시와의 기관교류전이 진행 중이다.

“완전한 것들의 틈”전처럼 7월 15일까지 열린다. “완전한 것들의 틈”전의 개막보다 더 빠른 4월 16일 시작된 이 교류전은 ‘기억의 출발: 휴먼지가 가라앉은 뒤’라는 주제로 해 광주와 라이프치히 두 도시가 걸어온 역사적 변혁의 시간을 현재와 미래의 시선으로 조망 중이다. 이 두 도시가 공유하는 변혁의 경험을 교차시켜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현재의 도시 풍경과 집단 기억을 형성해왔는지를 탐색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추천작가로는 이세현 정다영씨, 독일 추천작가로는 파울라 아발로스, 슈테판 후르티히, 크리스토프 블랑켄부르크 등이다.

전시 기획은 김하나 학예연구사와 라이프치히 시립미술관 큐레이터인 엘가 보스트레츠보가 공동으로 맡았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몰입형 미디어아트 작품 '민중해방운동사' (촬영본 일부, '완전한 것들의 틈' 전)

130년 퇴적...지금 풍경 탐구
'광주, 도시가 되어...' 기획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이 12일 개막, 오는 8월 9일까지 기획전 '광주, 도시가 되어 온 시간'을 연다. 이번 전시는 1896년 광주가 전남도청 소재지가 된 지 130년,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 40년을 맞아 광주가 도시로 형성되고 변화해 온 흐름을 되짚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사진과 지도, 엽서, 기록자료 등을 통해 광주의 공간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익숙한 거리와 동네가 어떤 시간을 지나 지금의 모습이 됐는지 따라가는 방식이다. 단순한 도시연대기가 아니라, '왜 광주가 전라도의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관람객에게 던진다.

전시는 1부 '형성되는 도시', 2부 '실제되는 도시', 3부 '확장되는 도시', 4부 '재편되는 도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광주와 전남의 관계를 함께 비추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분리와 통합, 확장을 반복해 온 시간 속에서 광주가 어떤 도시로 성장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도시로 기억될지를 질문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도 자연스럽게 맞닿는다.

황해운 기자 nabi@gjdream.com

무등 넘나들며 남긴 '백지의 시편' 채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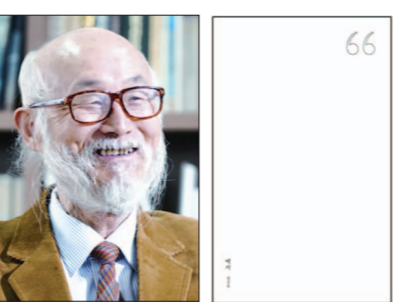
범대순 시인 12주기 추모식
16일 오후 4시 드래깅아트홀서

광주사람치고 무등산을 자주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까이 있는 산은 관심없고 멀리있는 산에 관심을 두는 습성 때문이다. 또는 이미 기본 산인데 고향 산이라고 해서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먼저 한다. 그래서 무등산을 자주 등반한 시민을 그리 많이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생전에 무등산을 1100회, 서석대를 160회 올라 '무등산 시인'으로 불린다. 그에 앞서 그의 등단작은 '백지'다. 그가 등단할 무렵 당선작이 백지시였다. 그냥 아무 활자 없이 백지로 공모했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올해 12주기를 맞은 광주 출생 범대순 시인(1930~2014) 이 그다.

전남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던 그는 대학교수로 후학들을 양성하던 교육자였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늘 시가 꿈틀거렸다. 처음에는 대학교수인가 보다 했다가 후에 무등산 등의 시집을 보고는 자기 심지가 확고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제자이든, 아니든 시인을 기억하는 문인들이 한데 뭉쳤다. 제12주기 추모식을 열고 문예지 '백지' 창간 기념 백지시회(白紙詩會)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광주·전남 작가회의, 원탁시회, 문학을 출판사 등 생전에 고인이 활동했던 단체의 문인들과 학계 인사들 그리고 유족이 준비했다.



그를 백지 시인으로 일컬어지는데 1974년 '현대시학'에 제목 없이 백지 자체의 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의 시편을 문단에 내민 셈이다.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었음에도 당시 문단 안팎에서 큰 화제를 모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문예지명을 백지로 하게 됐다.

이제 그가 생전 무등을 생각하는 걸을 읽을 수 있는 시편은 차고 넘친다. 그는 무등을 보며 자유를 생각했고, 넓은 시간의 품을 늘 느끼며 살아가듯 했다.

'보고 있으면 손에 잡힐 듯/ 동으로 서로 날리는 자유(무등산 백마능선 일부)'라거나 '그리고 그들이 침식을 잊은 까닭/그들을 잊게 하고 죽게 한 까닭/거기 사람을 아우른 넓은 시간들/그것은 결코 하회의 길이 아니었다'(무등산 속 국새-하회河回 씨에게 일부), '시간을 다스리는 숫자들이 증발하더니/세상이 따라다니다 말고 돌아가 버렸다'(무등산 서석대-정규철에게 일부), '돌아와 여기 춘추동애 서면/오랜 미움도 아픔도 다 그리움/아프리카도 히말라야도 모

두 다 같이 있구나'(새인봉 일부) 같은 구절이다.

임동환 시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문예지 '백지'의 창간과 '백지시회' 개최의 뜻을 광주전남의 새로운 문학운동 내지 문예부흥운동의 하나로 취급한다. 임 시인은 "우리는 멀게는 17세기 이래 조선조 시사(詩話) 내지 시회(詩會)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깝게는 일제 강점기 근대문학의 초석이 된 각종 시사(詩話) 운동 내지 시회(詩會) 운동을 잇고자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언어 이전의 상태, 곧 온갖 시비의 경계를 초월하는 무언의 언어로서 백지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직시하며 다양하고 풍부한 내적 감정을 표현한다. 명령하며 질문하고 요청하는 새로운 남도 서정을 일구고자 한다"고 전했다.

범대순 시인은 1958년 조지훈 시인의 추천으로 문단에 나와 저서로 '범대순 전집 6권', 시집 '흑인고수 루이의 북', '이방에서 노자를 읽다', '기승전결', '백지시', '파란대소', '무등산', '백년' 등 16권, 평론집 '백지와 기계의 시학', '1930년대의 영시연구', 번역서 '현대영미시론', 'W. H. 오든 시집' 등을 펴냈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해 문예한국 대상, 광주예술 부문 시민대상, 금호학술상, 영랑시문학상 등 다수 수상했다.

행사는 오는 16일 오후 4시 광주 남구 천변로392번지 소재 드래깅아트홀에서 열린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국악관현악 선율 속 전통·현대 '한 무대'
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5일 광주예술의전당

국악관현악 선율 속에서 전통과 현대가 한 무대 위에 교차된다. 국악관현악이 지닌 깊은 울림과 동시대적 감각을 두 지휘자의 서로 다른 음악적 색채와 단원들의 유기적인 호흡으로 풀어낸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제147회 정기연주회 '균형과 조화'를 선사한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최원록과 악장 김상욱의 2색 지휘 연주회로 진행된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연주회의 1부는 김상욱 악장이 지휘를 맡는다. 첫 무대에서는 한·중·일 연합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된 배대웅 작곡의 '남도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이어 김상욱 작곡의 '구름사우의 변형'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 단원을 역임하고 제11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한

소민영의 구음이 더해질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이정호 작곡의 '역동의 강'을 들려준다. 바다를 향해 흐르는 급강의 유구한 역사와 그 속에 담긴 민중의 희망을 노래한 작품으로, 다채로운 전조와 드라마틱한 선율 전개가 특징이다.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화성 속에 한국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에너지가 조화롭게 녹여낸 수작으로 평가 받는다.

2부는 최원록 부지휘자가 지휘봉을 잡는다. 무대는 박한규 작곡의 관현악 협주곡 '오색터링', 시립국악관현악단 김선제(이정), 유소희(거문고), 이정숙(가야금)의 협연으로 최치해 작곡의 3개의 현악기를 위한 산조협주곡 '시절풍류', 그리고 연주자 전원외의 특별한 호흡과 균형감을 요구하는 박범훈 관현악협주곡 '가기개'를 연주하며 무대의 막을 내린다.

6세 (2020년생) 이상 관람가.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